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LEMBER: THE SECRET BOOK

가제 : 플럼버 섬과 비밀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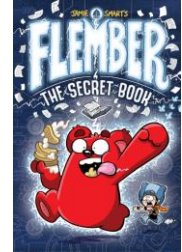
저자 : Jamie Smart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3일

분량 : 356 페이지

장르 : 모험



*** 프랑켄슈타인과 픽스 스튜디오가 만난 듯한 참신한 스토리 -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만화 잡지에서 활동해온 베스트셀러 만화가의 소설 데뷔작**

*** 각 장에 저자가 직접 그린 포근하고 귀여운 삽화 5-10장씩 포함**

비밀이 가득한 섬, 플럼버에는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자라난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너무 거대해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는 이곳에 자리한 ‘에덴 마을’에서 유명한 발명가 소년 데브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 중이다. 하늘을 나는 인공 날개와 치즈 가루로 작동하는 로켓 부츠, 반짝반짝 환한 빛이 나는 바나나 조명까지, 데브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다. 문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가 이 모든 발명의 원동력이지만, 그 결과는 성공보다 실패인 경우가 많고 의도치 않게 물건을 부수거나 말썽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급기야 시장 한복판에서 대형 사고를 친 후, 데브는 에덴 마을은 물론 섬 전체가 손꼽아 기다리는 ‘플럼버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다. 섬 전체에 흐르는 신비한 에너지, 플럼버가 일년 중에 가장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날, 모두가 기뻐하며 준비한 축제를 즐기는 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상심한 데브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에덴 마을에서 엄격히 금지된 물건인 책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찾아온 기회는 데브를 실수 연발 초보 발명가에서 위대한 발명가로 바꿔놓을 지도 모른다. 베스트셀러 만화가인 저자가 처음으로 완성한 이 소설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소년 데브의 유쾌하고 명랑한 모험이 저자의 귀여운 삽화와 조화를 이루며 보는 내내 미소 짓게 한다. 온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데브의 넘치는 열정과 흥미진진한 모험이 흡입력 있게 이어지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대형 사고의 시작은 한쪽 날개에 무려 250장씩 닭 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정교하게 만든 인공 날개였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한 번 의문이 들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다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데브는 플럼버의 날 축제 준비로 온 마을이 떠들썩하던 어느 날, 대체 플럼버는 어떻게 매년 같은 날 마을로 찾아오는지 알아내고 말리라 마음 먹는다. 에덴 마을을 비롯해 섬 곳곳에는 사람을 잡아 먹는 위험한 생물들이 가득하다는 ‘야생’ 지역과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한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는데, 플럼버는 그 벽 너머에서 조용히 흘러 들어와 만물을 깨웠다. 호수를 반짝이게 하고, 하늘을 푸르르게 하고,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 생기를 불어 넣는 신비한 기운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플럼버가 마을로 오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인공 날개는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발명품이었다. 치즈가 상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효모의 강력한 힘을 추진력으로 삼아 로켓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부츠까지 세트로 완성한 데브는 치즈 로켓 부츠를 신고 닭 털로 만든 인공 날개를 배낭처럼 짊어진 후 점프대에서 용감히 뛰어 내렸다! 늘 그렇듯 데브의 발명품은 완전히 광도 아니었지만 절대 성공하는 법도 없어서, 어느 정도 날아가다 그만 시장 한복판에 떨어지고 만다. 피해를 줄이려고 발버둥치다 친한 이웃 소녀 미나를 다치게 하고, 골동품 가게 진열장을 다 망가뜨린 데브는 그대로 시장님 앞에 불려간다. 심술궂은 범블버스 시장은 플럼버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다는 데브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 너머 야생 지역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더니, 결국 플럼버의 날 축제에 데브가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플럼버 섬에서 어질고 선한 시장이었던 데브의 아버지가 사라진 후, 엄마와 데브를 외면하고 범블버스의 측근이 된 형 산토로는 이번에도 데브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플럼버의 날을 제대로 즐기려던 데브는 혼자만 축제를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망한 데브는 시장의 지시대로 엉망진창이 된 골동품 가게를 청소하던 중, 가게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구석에 다락방처럼 문이 닫혀 있는 공간을 발견한다. 호기심에 슬쩍 들어가 본 데브는 그 안에 플럼버에서는 소유하는 것도, 읽는 것도 금지된 책이 가득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중에서도 <플럼버의 책>이라는 제목이 적힌 얇은 책을 발견한 데브는 얼른 책을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데 성공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열어보니, 어딘가 익숙한 스케치와 함께 플럼버의 강력한 힘에 관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때마침 데브가 일으킨 사고로 망가진 곰 인형을 고쳐 달라며 미나가 찾아오고, 데브는 책에서 본 플럼버의 신기한 재생 기능을 곰인형에게 실험해보기로 마음 먹는다. 푸른 색으로 반짝이는 플럼버를 인위적으로 불러 모으는 돌을 찾아낸 데브는 미나의 곰 인형을 고치는데 성공하고, 기세를 몰아 거대한 로봇 곰 인형을 설계한다. 몇 날 며칠을 골머리를 짜낸 끝에 마침내 로봇 곰을 완성한 후 플럼버로 생명을 불어 넣는 것까지 성공한 데이브는 태어나 처음으로 발명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뿔 듯이 기뻐하지만, 곰 데브의 첫 성공작은 사상 최악의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늘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발명 때문에 수습하기도 힘든 난리법석을 만들어내는 발명가 소년의 모험이 배꼽 잡는 웃음, 그리고 감동과 함께 펼쳐진다.

<저자 소개>

제이미 스마트(Jamie Smart)는 영국의 유명한 어린이 만화 잡지 「The Dandy」, 「Beano」, 그리고 가디언, 선데이타임스 등에서 활동해온 만화가다. 카툰 네트워크에서도 일을 해왔으며 디즈니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13년에는 만화 'Fish-Head Steve'로 로알드 달 퍼니 상(Roald Dahl Funny Prize) 결승에 올랐다.

제목 : A BABYSITTER'S GUIDE TO MONSTERS

가제 : 괴물 잡는 베이비시터를 위한 안내서

저자 : Joe Ballarini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2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모험



★ 넷플렉스 영화로 제작될 예정 /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 “무섭지만 웃기고, 영리하고 따뜻함이 가득 느껴지는 이야기. 무엇보다 좋은 건 주인공이 매력적인 진짜 영웅이라는 점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가브리엘 제빈(Gabrielle Zevin)

★ “정신 없는 추격, 과감한 탈출, 폭발하는 꿈 인형, 마법에 걸린 무기, 악몽에서 나온 적군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놀라운 모험 이야기” -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 프로듀서 켈럼 그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꿈의 여름 캠프 미스카토닉!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소리를 우연히 듣다가 미스카토닉 캠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켈리는 무조건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 그룹의 한 명인 디애나가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한 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캠프 웹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본 켈리는 그림처럼 펼쳐진 호수와 들판, 사진으로만 봐도 흥미진진한 만들기 활동과 푸르른 숲 위를 가로지르는 짙라인, ‘자유’라는 멋진 이름이 붙은 조랑말 타기를 보며 이곳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곳을 확신했다. 브룩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켈리의 입지는 한 마디로 애매모호했다. 디애나가 속한 그룹처럼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부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갑자기 사라져도 과연 몇 이나 알아챌까, 싶을 만큼 있는 듯 마는 듯 한 존재였다. 미스카토닉 캠프에서 여름을 보내고 오면, 이 자신감 없고 축 처진 마음을 씻어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딱 하나, 캠프 참가비가 무려 4천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상, 철없이 돈을 대 달라고 조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켈리가 아니었다. 지난 수 개월간 켈리는 아동 복지국에서 알면 수상하다고 여길 만큼 온갖 직종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레모네이드를 직접 만들어서 가판에서 판 적도 있고, 빗물 흡통을 청소하는 일이다 슈퍼마켓 계산, 눈 치우고 잔디 깎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3천 달러를 가까스로 모은 켈리는 여름이 오기 전에 나머지 1,000 달러를 더 벌어야 했다.

투정 부리고 걸핏하면 울거나 하는 어린 아이들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기만 한 존재였지만, 단기간에 째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친구가 아기 봐주는 일로 부족한 돈을 채워보라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썩 내키지 않았던 켈리는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날, 마음의 준비도 채 하지 못한 채로 덜컥 아이를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엄마의 직장 상사가 파티 당일에 5살배기 아들 제이콥을 봐줄 사람이 없다며 켈리에게 부탁한 것이다! 엄마가 상사의 눈 밖에 나서 흑시라도 일자리를

않으면 어쩌나, 걱정한다는 사실까지 안 이상, 켈리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다. 할로윈 파티에서 평소 좋아해온 남학생과 좀 더 가까워질 계획이었던 켈리는 미스카토닉 캠프만 떠올리며 돈을 버는데 의의를 두기로 스스로 위안한다. 제이콥은 잠시도 가만 있지 않고 짜증에 투정을 쏟아내고, 기가 죽은 켈리는 ‘에라 모르겠다’ 모드로 시간을 때우기 시작한다. 제이콥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를 돌려 받으려고 엄청난 양의 사탕을 뇌물로 건네고, 그 바람에 과도한 당분의 영향으로 미친 듯이 까불고 뛰어다니는 제이콥 때문에 또 다시 진땀을 뺀 켈리는 잠을 안 자겠다고 고집 부리는 제이콥을 겨우 재운 뒤, 이제 고난은 다 끝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

평소에 제이콥이 악몽을 심하게 꾸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켈리는 조용한 방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부리나케 제이콥의 방으로 달려간 켈리는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괴물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기겁한다. 그 사이, 기괴한 모습을 한 괴물들은 제이콥을 납치한다! 겨우 정신을 차린 켈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제이콥의 원래 베시비시터 리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베이비시터 손에 맡겨진 아이들만 노리는 사악한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랑기놀’이라는 이름의 부기맨을 중심으로 한 이 귀신과 괴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이콥처럼 악몽을 잘 꾸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이들의 악몽을 현실로 바꿔 온 세상을 악몽 가득한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섬뜩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행히 외출하는 부모들 대신 어린 아이들을 돌봐온 베이비시터들은 이 계획을 알아채고 비밀 조직을 꾸려 용감히 맞서왔다. 켈리가 도움을 요청한 리즈도 귀신 쫓는 베테랑 베이비시터 중 한 사람이었다!

홀로 잠든 아이들만 노리는 사악한 괴물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베이비시터들은 특별한 안내서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의 어느 박물관에 걸려 있을 것만 같은 각종 이국적인 무기와 마법 기능이 숨어 있는 수정 구슬, 알파벳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된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각기 물약과 함께 특별한 베이비시터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이 ‘베이비시터를 위한 괴물 사냥 가이드’라는 제목의 안내서에는 지금까지 부기맨을 만나 직접 싸우면서 얻은 귀중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노트에 담긴 정보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제이콥을 찾으러 나선 리즈와 눈 깜짝할 새에 코 앞에서 놓친 그랑기놀을 반드시 잡고 말리라는 결심으로 이들을 돕기로 한 켈리는 제이콥의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그랑기놀이 아이들을 수집품처럼 데려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치솟는 두려움을 간신히 눌러가며 리즈를 도와 그랑기놀, 그리고 그의 부하 괴물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켈리는 값비싼 캠프에서 간절히 얻고 싶었던 것, 즉 지금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놀라운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한다. 베이비시터와 악몽이라는 친근한 소재에 귀신과 더불어 유머를 가득 담아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개성 넘치는 흑백 삽화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조 발래리니(Joe Ballarini)는 영화 ‘My Little Pony’와 ‘Dance of the Dead’의 각본을 쓴 작가다. 최근에는 ‘Atlantis 7’, ‘Lockdown’, ‘Merlin’ 등의 영화와 워너브라더스 TV에 판매한 시리즈 ‘Be Cool, Scooby Doo’의 각본을 썼다.